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3. 27.(금) / (총 22매)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과 장	박 혜 경	전 화	043-719-9050	
	담당자	전 은 정		043-719-906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7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332명(해외유입 309명*(외국인 31명))이며, 이 중 4,52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91명이고, 격리해제는 38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 26.(목) 0시 기준	364,942	9,241	4,144	4,966	131	14,369	341,332
3. 27.(금) 0시 기준	376,961	9,332	4,528	4,665	139	15,219	352,410
변동	12,019	91	384	-301	8	850	11,078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27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4,665	283	30	3,094	33	9	22	19	35	277	10	24	46	3	5	599	29	3	144
격리해제	4,528	89	81	3,324	13	11	9	20	9	131	20	17	78	7	3	650	62	4	0
사망	139	0	2	98	0	0	0	0	0	4	1	0	0	0	0	34	0	0	0
합계*	9,332	372	113	6,516	46	20	31	39	44	412	31	41	124	10	8	1,283	91	7	144
(전일대비)	(91)	(12)	(1)	(34)	(3)	(1)	(1)	(2)	-	(11)	-	(2)	-	-	-	(9)	(1)	(1)	(13)

※ 3월 26일 0시부터 3월 2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1.8%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4.9%이다.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 발생 사례
	누계	해외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개	산천지 관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유입 관련			
서울	372	74	268	7	198	37	26	30	12	구로구 콜센터 관련(96명),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0명) 등
부산	113	2	76	11	49	16	0	35	1	온천교회 관련(32명), 수영구 유치원 관련(5명) 등
대구	6,516	2	5,487	4,391	366	730	0	1,027	34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03명), 대실요양병원(90명), 김신요양병원 관련(37명), 대구파티마병원 관련(19명) 등
인천	46	8	34	2	27	3	2	4	3	구로구 콜센터 관련(20명) 등
광주	20	4	14	9	0	2	3	2	1	
대전	31	2	18	2	10	6	0	11	1	산림기술연구원 관련(3명) 등
울산	39	7	24	16	1	4	3	8	2	
세종	44	0	42	1	38	3	0	2	0	해양수산부 관련(30명), 운동시설 관련(8명)
경기	412	49	315	29	210	60	16	48	11	성남 은행강 교회 관련(68명),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광교회 관련(47명) 등
강원	31	2	22	17	5	0	0	7	0	원주시 아파트 관련(3명) 등
충북	41	1	28	6	11	11	0	12	2	괴산군 장연면 관련(11명)
충남	124	5	112	0	112	0	0	7	0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명), 서산시 연구소 관련(8명) 등
전북	10	3	1	1	0	0	0	6	0	
전남	8	1	4	1	0	2	1	3	0	
경북	1,283	1	1,117	554	390	172	1	165	9	청도 대남병원 관련(120명), 봉화 푸른요양원(68명), 상주세관 관련(49명), 경산 사요양병원 관련(36명) 등
경남	91	2	73	32	35	6	0	16	1	가창교회 관련(10명), 가창군 웅양면 관련(8명) 등
제주	7	2	0		0	0	0	5	1	
검역	144	144	0		0	0	0	0	13	
합계	9,332	309 (3.3%)	7,635 (81.8%)	5,079 (54.4%)	1,452 (15.6%)	1,052 (11.3%)	52 (0.6%)	1,388 (14.9%)	91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3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어**(접촉자 3명)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6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동일 건물 직원 97명(11층 94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66명

- 확진된 3명은 모두 11층 콜센터 소속 확진자가 방문했던 경기도 부천시 소재 교회(생명수교회) 관련 접촉자이다.

* 부천 생명수 교회 관련 확진자 총 25명

○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3월 26일 **입원환자 1명이 확진**되어 직원 및 환자 355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6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6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환자 286명, 종사자 72명

** 환자 60, 간병인 1

- 해당 의료기관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3월 21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3월 24일 입원환자 1명이 증상이 발생하여 확진되었다.

- 접촉자 및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해당 건물 전체 이용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27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최근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3.27. 0시 기준 신규확진자 91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19건(20.9%)

· 유럽 11, 미주 7, 중국 외 아시아 1 / 내국인 19 / 검역 13, 지역사회 6

* 3.27. 0시 기준 누적확진자 9,332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309건(3.3%)

· 유럽 179, 미주 74, 중국 외 아시아 37, 중국 17, 아프리카 2 / 검역 144, 지역사회 165 / 내국인 278, 외국인 31

□ 정부는 **3.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7일(금)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및 유증상자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 단기 방문 외국인은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일 경우 자가관리앱과 강화된 능동감시로 관리한다.

-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여 발열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게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자차를 이용하며, 이동 중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 3.28일부터 자차 이용이 어려운 입국자를 위해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 등 교통 지원 실시 예정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별첨4).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 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 전파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많은 국민이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 경제적 피해가 큰 자영업자, 개학 연기로 부담이 가중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적 위축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 따뜻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면서 누구나 우울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코로나 우울증'을 예방·극복하는 방법으로,

- 주변 이웃,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안부 인사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 가까이 두기' 활동을 권고했다.

-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전문적인 심리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심리학회 '1-3 Hello; 어떻게 지내' 캠페인을 통해 하루 3명에게 메신저, 영상통화 등으로 안부 전하기, 건강한 일상 SNS 올리기 등 사회적 단절 해소방안 제시

**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 감염병전문상담센터 1339,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0001~2),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를 통한 전문 심리상담(무료) 필요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3월 27일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과기부, 식약처 및 의료기관과 함께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향후 민관협의체를 통해 진단,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연구개발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포스터

4.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조사

5. 코로나19 부처 및 민관 협력연구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안)

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7.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8. <일반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0.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1. 마스크 착용방법 홍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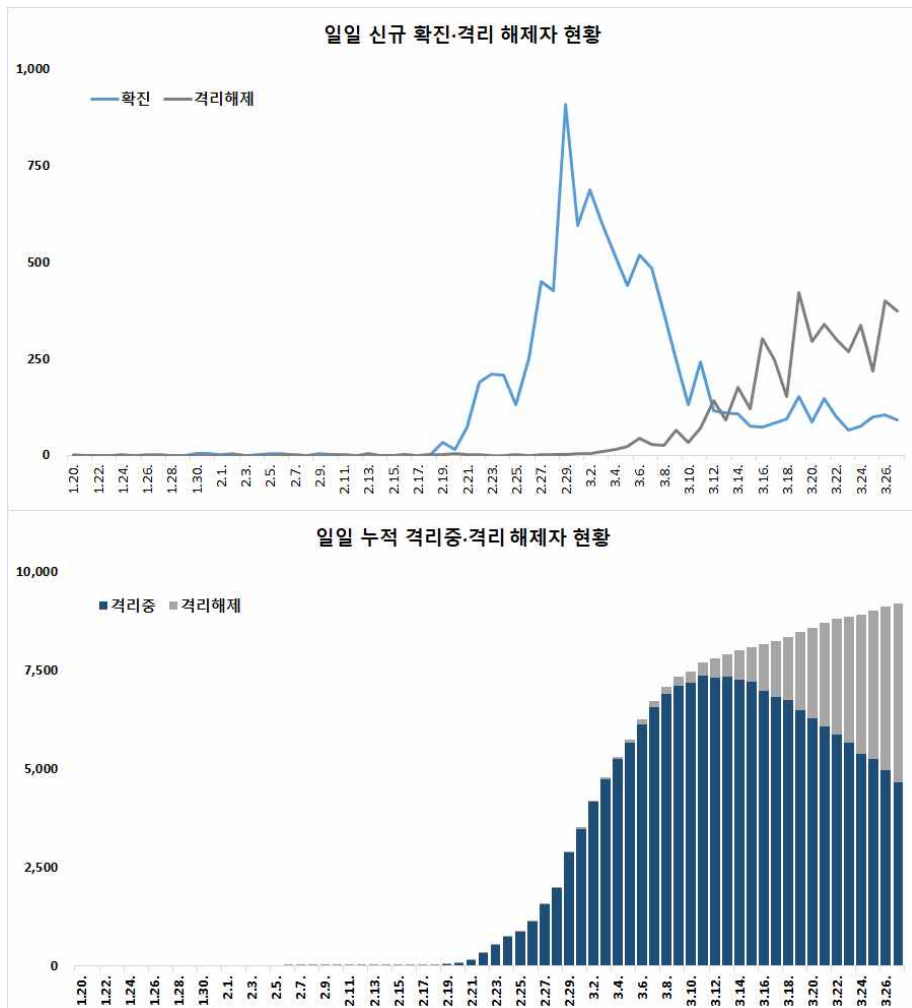
1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3.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붙임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확진자 일별 추세 (3.27일 0시 기준, 9,33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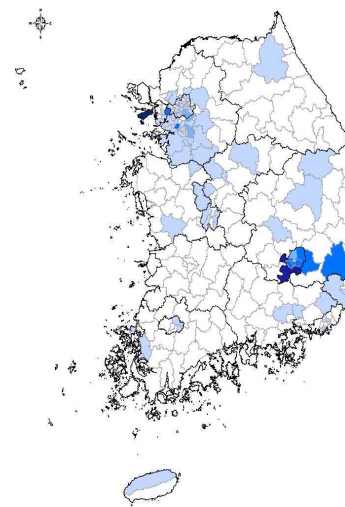
2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3.27일 0시 기준, 9,332명)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372	3.99	3.82	경기	412	4.41	3.11
부산	113	1.21	3.31	강원	31	0.33	2.01
대구	6,516	69.82	267.43	충북	41	0.44	2.56
인천	46	0.49	1.56	충남	124	1.33	5.84
광주	20	0.21	1.37	전북	10	0.11	0.55
대전	31	0.33	2.10	전남	8	0.09	0.43
울산	39	0.42	3.40	경북	1,283	13.75	48.19
세종	44	0.47	12.85	경남	91	0.98	2.71
검역	144	1.54		제주	7	0.08	1.04
총합계					9,332	(100)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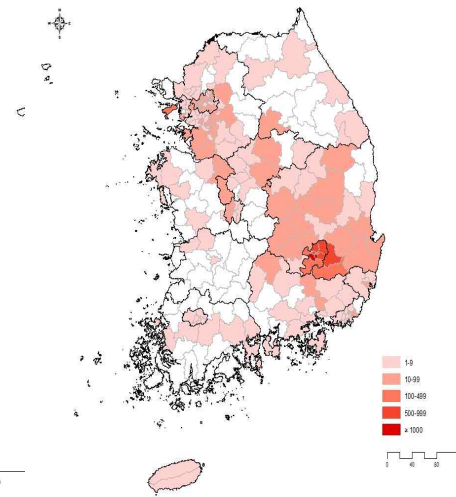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기관 주소지 기준 확진자 발생 분포(시군구 단위)>

최근 1주 확진자 현황
(‘20.3.20.~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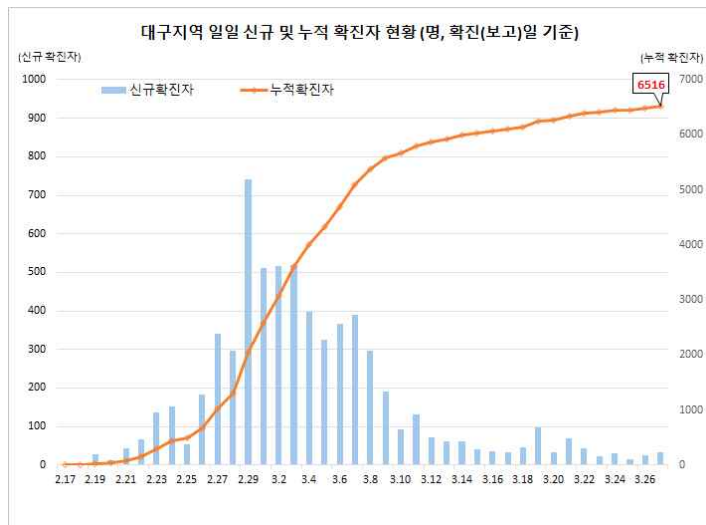


누적 확진자 현황
(‘20.1.1.~3.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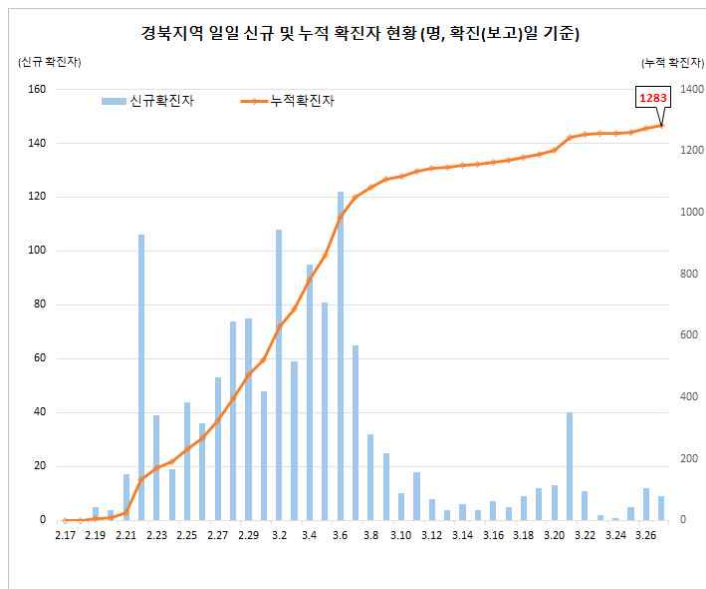


< 대구/경북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대구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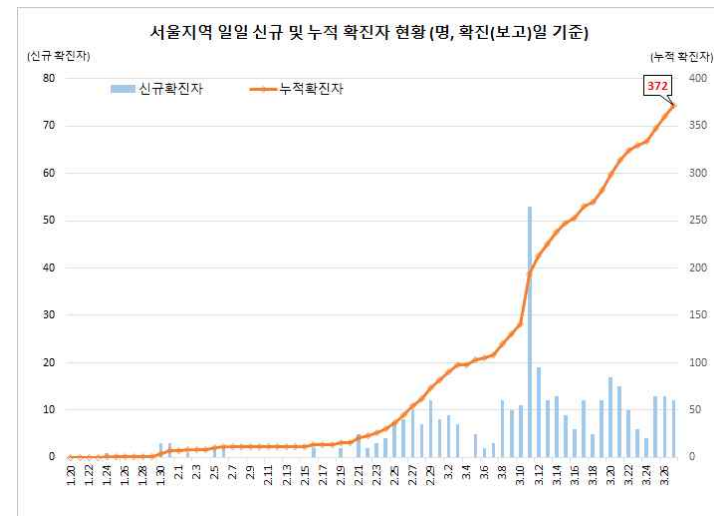


경북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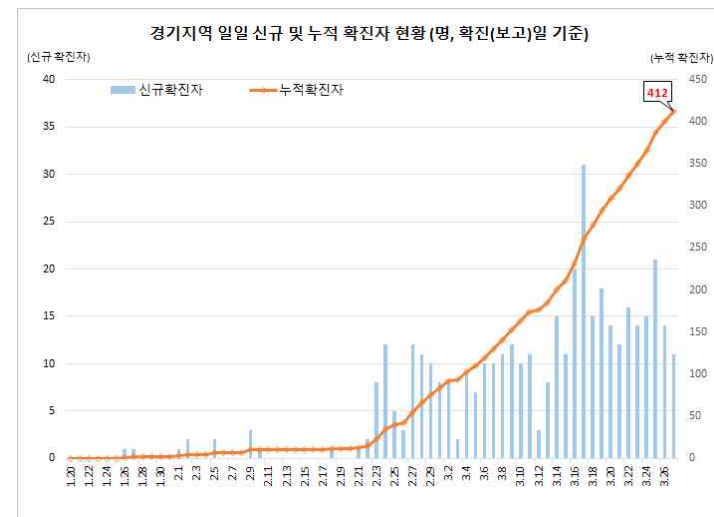


< 서울/경기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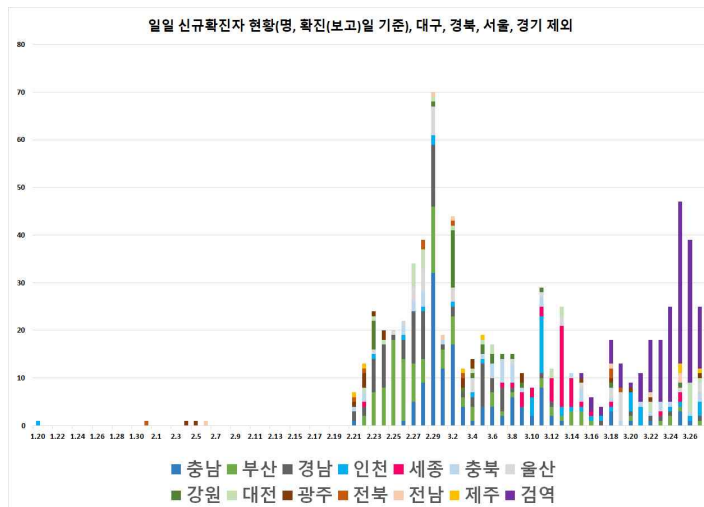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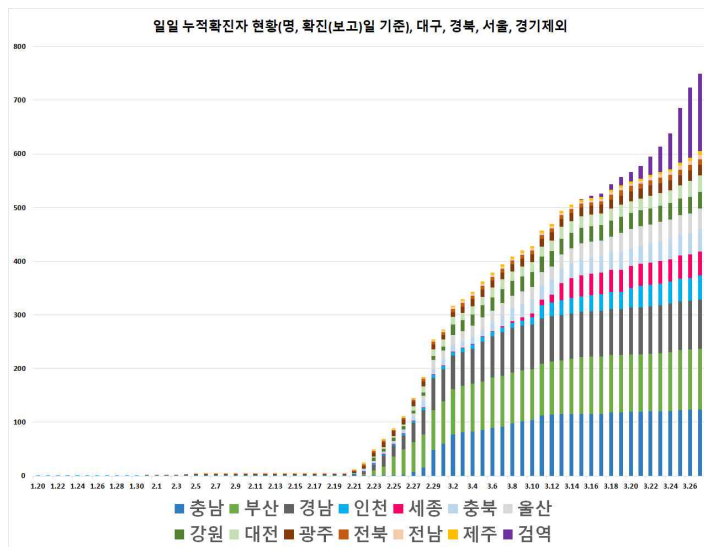


<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일별 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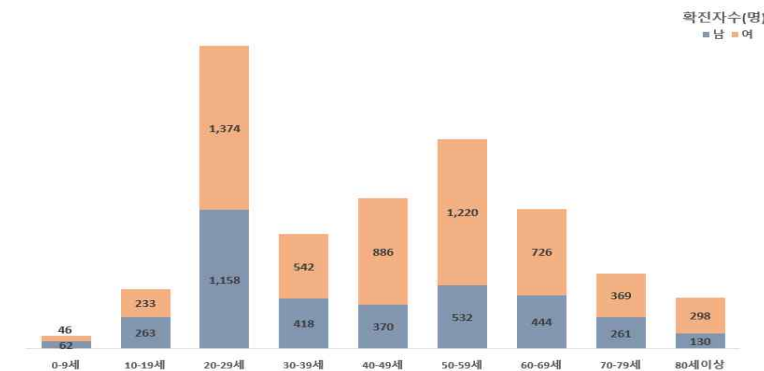
③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3.27일 0시 기준, 9,332명)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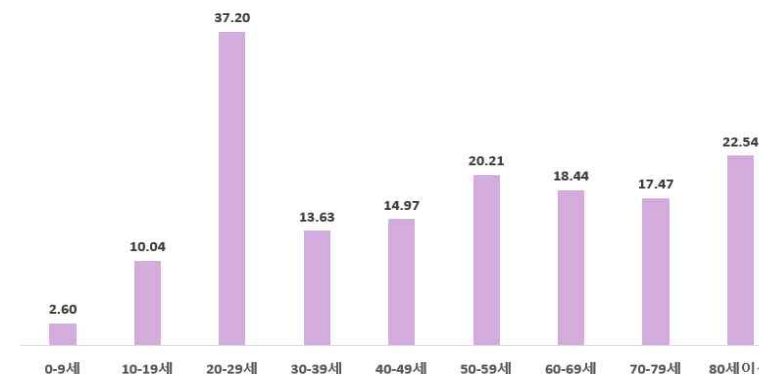
구 분		확진자 (%)	사망자 (%)	치명률(%)
계		9,332 (100)	139 (100)	1.49
성별	남성	3,638 (38.98)	75 (53.96)	2.06
	여성	5,694 (61.02)	64 (46.04)	1.12
연령(세)	80 이상	428 (4.59)	65 (46.76)	15.19
	70-79	630 (6.75)	41 (29.50)	6.51
	60-69	1,170 (12.54)	21 (15.11)	1.79
	50-59	1,752 (18.77)	10 (7.19)	0.57
	40-49	1,256 (13.46)	1 (0.72)	0.08
	30-39	960 (10.29)	1 (0.72)	0.10
	20-29	2,532 (27.13)	0 (0.00)	-
	10-19	496 (5.32)	0 (0.00)	-
	0-9	108 (1.16)	0 (0.00)	-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연령별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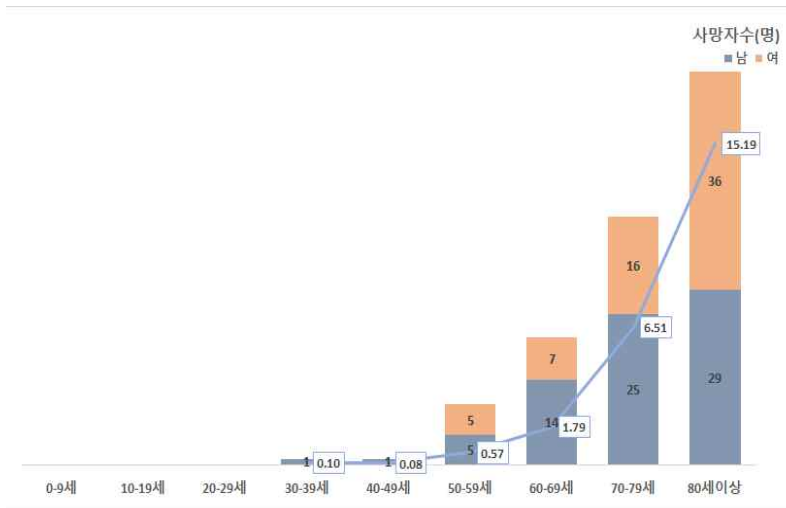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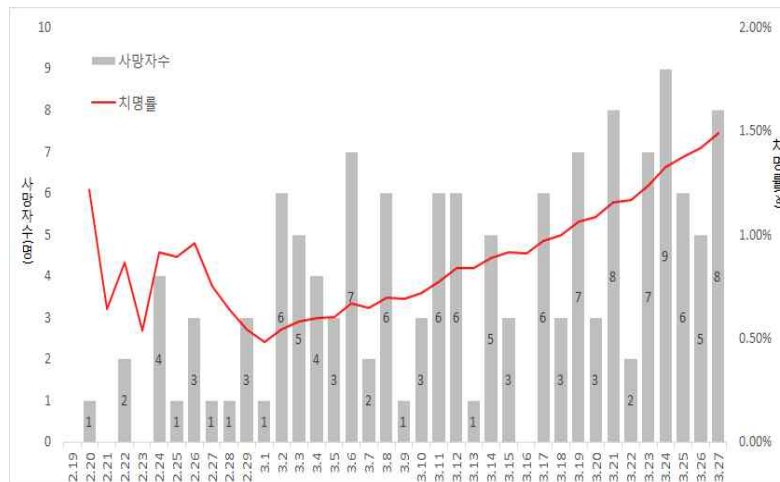


4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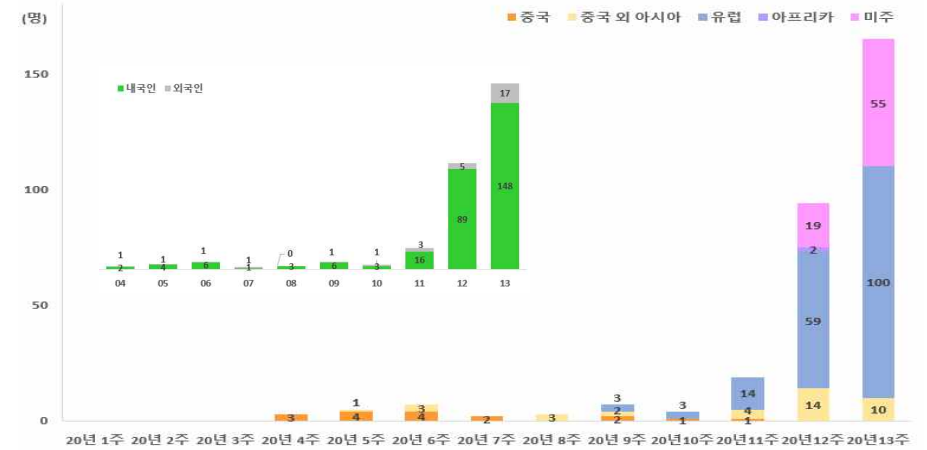
연령별
사망자
현황



일별
사망자
현황



5 해외유입 추정 현황



신고주차	확진자수(명)	여행국
04	중국 3	-
05	중국 4	-
	중국 외 아시아 1	일본
06	중국 4	-
	중국 외 아시아 3	태국, 싱가포르
07	중국 2	-
08	중국 외 아시아 3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09	중국 2	-
	중국 외 아시아 2	태국, 일본
	유럽 3	독일, 터키, 이탈리아, 프랑스
10	중국 1	-
	유럽 3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
11	중국 1	-
	중국 외 아시아 4	필리핀, 태국
	유럽 14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체코, 폴란드
12	중국 외 아시아 14	태국, 필리핀, 이란
	유럽 59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아일랜드, (모로코)
	아프리카 2	이집트
	미주 19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13	중국 외 아시아 10	필리핀, 태국
	유럽 100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미주 55	미국, 콜롬비아-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 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붙임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환자 발생 10,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

	3.21일	3.22일	3.23일	3.24일	3.25일	3.26일	3.27일	누적 사망자수 (지명률 %)
미국	18,563명	24,148명	33,073명	43,214명	53,268명	68,285명	83,507명	1,201명(1.4%)
중국	81,008명	81,054명	81,093명	81,171명	81,278명	81,285명	81,285명	3,287명(4.0%)
이탈리아	47,021명	53,578명	59,138명	63,927명	69,170명	74,386명	80,539명	8,165명(10.1%)
스페인	19,980명	24,926명	28,572명	33,089명	36,673명	47,610명	56,188명	4,089명(7.3%)
독일	19,848명	22,213명	23,974명	29,056명	32,986명	37,323명	43,938명	267명(0.6%)
이란	19,644명	20,610명	21,638명	23,049명	24,811명	27,017명	29,406명	2,234명(7.6%)
프랑스	12,612명	14,459명	16,018명	19,856명	22,302명	25,233명	29,155명	1,696명(5.8%)
스위스	4,840명	6,113명	7,014명	8,060명	8,836명	9,765명	10,714명	161명(1.5%)
영국	3,983명	5,018명	5,683명	6,650명	8,077명	9,529명	10,658명	578명(5.4%)
총 국가수	153개국	158개국	162개국	166개국	169개국	171개국	174개국	
총 환자수	256,587명	287,170명	317,796명	357,080명	394,669명	445,155명	504,806명	
총 사망자수	11,018명	12,643명	14,479명	16,006명	18,104명	20,484명	23,116명	

* (출처) 각 국 보건당국, WHO, 美 존스홉킨스대(미국, 독일) 통계 자료

* 국가별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참조

붙임3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포스터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딸~ 밥은 잘 챙겨 먹어?”
“먹었지~ 엄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까운 이들도
멀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음만큼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며
자주 격려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발행일 : 2020. 3. 20.



붙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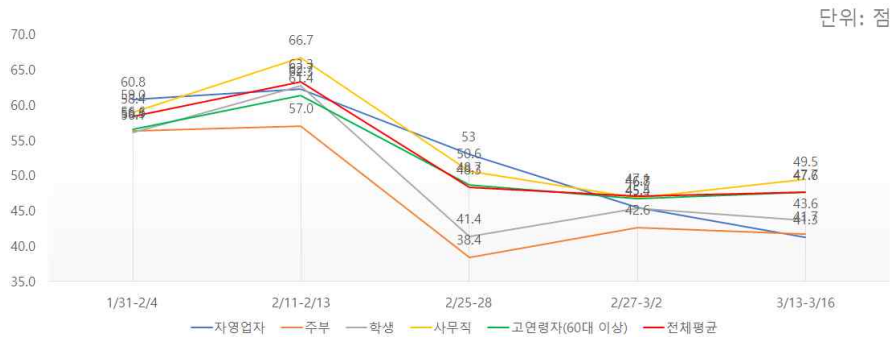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조사

♣ 코로나19 이후 일상 변화

Q.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1/20) 후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 0점 일상 완전 정지·위축 ↔ 100점 지난 일상 그대로

- (3/13-16일 기준) **평균 47.7점**, 사무직 49.5점 > 고연령자(60대 이상) 47.6점 > 학생 43.6점 > **주부 41.7점** > **자영업자 41.3점**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 한국리서치 조사

2020.1.31.~3.16.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붙임5

코로나19 부처 및 민간 협력연구 강화를 위한 회의 개최 (안)

□ 개요

- (일시) 2020년 3월 27일(금) 15:00~17:00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 (목적) 코로나19 진단·백신·치료제 개발 연구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등 논의
 - 정부 및 민간기관 참여 협의체 구성 필요성 논의 (진단, 백신, 치료제 분과 등)
 - 국가 대응 연구 협업 등 효율성 증진 방안 논의
 - 정부 및 민간 역할 논의 등

□ 참석자

-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중앙임상치료TF, 대한감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관련 부처)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과기부, 식약처

□ 기대 효과

- 코로나19 대응 연구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효율적 연구기반 강화 및 연구성과 도출 가능

붙임6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7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